



MIFF

말레이시아 가구박람회

말레이시아 제조업체 및 인근의 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지의 생산업자와 전 세계의 바이어가 만나는 전문 전시회인 말레이시아 국제 가구박람회(Malaysian International Furniture Fair)가 지난 3월 1일부터 5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PWTC와 KLCC전시장의 8만㎡ 규모로 개최되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아시아는 물론 인도와 호주, 영국, 미국 등 140여 국가에서 7천 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했으며 중국, 인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미국, 이집트, 일본 등의 500여 업체가 참가했다. 이들 중 약 70%정도는 로컬 제조 업체를 차지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가구 산업은 제조, 판매, 유통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며 그 중심에 MIFF가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그린에 대한 이해와 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환으로 오일팜우드, 왕겨 등 소재의 사용과 생산을 넘어서 제품의 패키지 부분까지 확장하여 선보였으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미니멀한 공간이나 콘도 등의 리빙공간에 공급할 수 있는 스타일리쉬하면서도 콤팩트한 가구를 선보였다. **GaGu** 말레이시아 현지취재/강윤정 기자



업홀스터리 가구가 전시된 KLCC전경



Best Presentation Gold Award를 수상한 SJI Industries 부스



특히 우드 소재의 다이닝 제품은 대부분 모던한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으며 부스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다.

2009년 이후로 말레이시아의 가구산업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가구수출국으로 자리잡았는데 로컬가구 산업 중 85%가 유럽, 미국, 중동 등의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높은 퀄리티와 가격적인 경쟁력 뿐만 아니라 고무나무를 소재로 활용하고 오피스, 주방, 업홀스터리부터 아동가구까지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준다.

올해 MIFF는 PWTC와 KLCC 두 군데의 전시장에서 열렸는데 PWTC에서는 오피스 가구와 홈, 아우도어 퍼니처를, KLCC 소파와 침대 등의 업홀스터리 위주의 홈퍼니처 아이템을 선보였다. 그린을 콘셉트로 70%이상 왕겨를 소재로 한 친환경 우드 제품을 선보인 Sirim, 오일팜 우드를 사용하여 유니크한 디자인의 커피테이블을 제작하는 DHEP 등 에코프렌들리를 내세운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한 컨템퍼러리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업홀스터리 가구들은 가격경쟁력과 디자인적인 면을 모두 만족시켰으며 Smart Kids 등 기발한 디자인의 아동가구 업체들도 많이 참가하여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SJI사의 우드 침대

Interview

Q. 올해 MIFF의 특징은?

A.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인 이슈를 반영하여 '그린'을 콘셉트로 하였다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오일팜우드, 왕겨 등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구외에도 재활용가능한 업홀스터리 패브릭을 사용한 오피스 제품 등을 선보였다. 또한 타이완, 차이나관 등 국가관을 따로 마련하여 국제적인 바이어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Q. 2012년 더 발전된 MIFF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은?

A. 바이어들은 오래된 제품을 보러 방문하지 않는다. 때문에 좋은 디자인의 새로운 제품을 많이 전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의 회사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아이디어 어워드를 더욱 발전시켜 영디자이너들에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MIFF Managing Director
Dato' Dr Tan Chin Huat

Upholstery

다양한 컬러, 소재 등을 달리한 업홀스터리 가구가 선보였는데 디자인은 모던하고 심플하지만 등받이가 젖혀지거나 리클라이너 기능이 부가된 기능성 소파, 모듈이 가능한 소파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소파 디자인을 엿볼 수 있었다.



주로 컨템퍼러리한 모던한 스타일을 선보였으며 유럽, 미국 등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제품의 라인별로 가격대를 다양하게 하여 글로벌 마켓을 지향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엿보였다.



INS sofa

Company Interview



General Manager
Chai Kian Peng

Rubelli

Established of year : 1995
Company Location : Malaysia
Factory Location : China
Main Products : Upholstered furniture, Living Room
Price : High & Middle Price, Middle & Low Price
Exporting Countries : USA, Canada, UK, Scandinavia, Italy, Japan, Canada

“모던하면서도 이코노믹한 디자인의 업홀스터리 소파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자사만의 포켓스프링은 편안함을 더해주며 다양한 종류의 가죽, 패브릭 등 소재를 업홀스터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페어에는 시즌 스타일인 컨템퍼러리하고 심플한 밸류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Office Furniture



매쉬소재, 다양한 컬러감으로
각각적인 오피스 체어,
benithem

최적의 사무환경을 완성할 수 있는 토털 시스템 사무용 가구들이 많이 전시되었는데 습한 기후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매쉬마감으로 스타일리쉬하게 표현한 오피스 체어가 눈에 띄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거나 인체공학적 디자인 등 실용적인 면을 강화한 제품 또한 선보였다.



kokuyo사의
오피스체어

사무환경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safari

Company Interview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Melvin Chay

Euro

Established of year : 1976
Company Location : Malaysia
Factory Location : Malaysia
Main Products : Office
Price : High & Middle Price
Exporting Countries : Spain,
Singapore, Japan, India

“토털 오피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로체어는 5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ISO9001인증으로 품질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다. 100% 알루미늄과 매쉬마감으로 스타일리쉬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신제품을 통해 더욱 다양한 각국의 바이어들과 자국의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기 위해 페어에 참가하고 있다.”



Ideation Award 2011

올해로 2회째를 맞는 Ideation Award는 지난해 처음 신설된 이래 600여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하여 48여 작품이 경쟁을 거름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구산업의 디자인 발전과 영 디자이너에 대한 후원과 육성을 위해 개최되어 오고 있는데 올해는 New Urbanism,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라는 주제로 68여가지의 작품들이 경쟁을 벌였으며 11점의 파이널 작품이 이번 MIFF 기간중 KLCC에서 전시되었다.



1등 수상작